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9년 6월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경기 및 산업생산
2. 민간소비
3. 투자
4. 수출입
5. 물가
6. 통화·금융

제2장 해외경제

1. 성장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제3장 99년 경제전망

1. 성장 및 고용
2. 물가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4. 금리 및 환율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
2. 향후 정책방향
 - 가. 저금리기조의 유지
 - 나.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적 접근
 - 다. 실업 및 소득불균형 문제의 해소

<부록>

1. 경제정책정보
2. 주요경제통계

국내경제동향

1. 경기 및 산업생산

- 1/4분기중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이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는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6%성장세를 기록.
 - 민간소비는 승용차, PC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증가(28.9%)로 전년동기대비 6.4%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등 운수장비투자(49.7%)에 대한 투자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2.9%증가.
 - 반면 정부소비는 인력감축 및 경상경비예산의 긴축운용으로 2.2%감소했으며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27.6%)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침체에 따른 건물건설투자 부진(-30.7)으로 전년동기대비 13.7%감소.

국내총생산(95년가격 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1997	1998					1999
	1/4	1/4	2/4	3/4	4/4	연간	1/4
국내총생산	4.9	-3.6	-7.2	-7.1	-5.3	-5.8	4.6
민간소비	4.5	-9.9	-11.2	-10.4	-6.9	-9.6	6.3
정부소비	1.7	1.3	-0.7	-0.6	-0.4	-0.1	-2.2
건설투자	-1.9	-5.9	-7.8	-12.0	-13.7	-10.2	-13.7
설비투자	4.2	-38.3	-46.1	-39.3	-27.4	-38.5	12.9
총수출	11.1	25.7	13.2	8.0	8.8	13.3	12.4
총수입	7.8	-27.2	-25.5	-25.9	-9.0	-22.0	27.5

- 1/4분기에 이어 4~5월중에도 내수지표들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과 건설관련지표의 움직임도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2/4분기중에도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우선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지난 해 9월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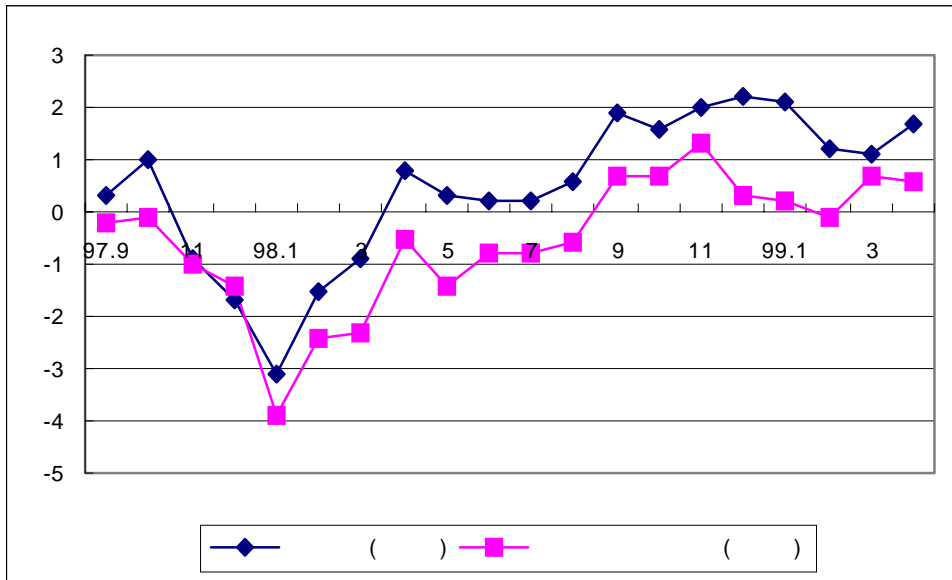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4월에는 14개월만에 90대로 진입.

· 또한 선행지수도 전월비 1.7%증가하면서 3월보다 증가세가 빨라짐.

최근 경기종합지수의 추이

	1997	1998					1999			
	연간	3월	6월	9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0.6	89.7	87.0	86.3	88.6	88.5	88.7	88.5	89.4	90.0
선행지수 ¹⁾	6.4	-0.9	0.2	1.9	2.2	-1.6	2.1	1.2	1.1	1.7

주: 1) 계절조정지수의 전월비 증가율(%)



· 또한 산업생산과 출하가 3월에 이어 4월중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평균가동률도 74%대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호조.

최근 산업생산 및 평균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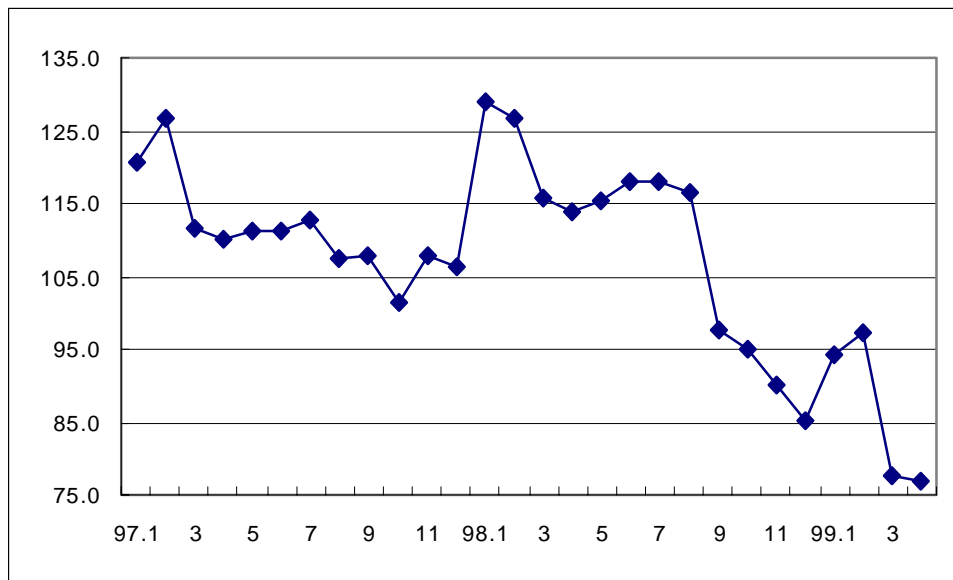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연간	상반기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4	4월
생산	생 산	산	5.3	-9.7	-9.5	-1.6	-7.3	14.8	3.9	18.8	12.5	17.1
	출 하	하	6.8	-10.5	-9.6	-2.2	-7.1	13.6	6.7	21.4	14.1	19.5
	· 내 수	수	1.2	-25.2	-25.3	-18.5	-23.0	6.5	2.6	16.4	8.8	15.8
	· 수 출	출	22.2	27.5	24.4	30.2	28.5	24.7	12.3	28.6	21.9	24.8
	재 고	고	5.2	-7.6	-10.9	-17.3	-17.3	-16.9	-18.1	-18.6	-18.6	-19.4
	평 균 가 동 률	동 률	79.0	67.2	66.7	69.9	68.1	69.6	69.7	74.7	71.3	74.2

주: 재고는 기말기준

- 재고감소율이 여전히 높으나 출하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재고/출하비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재고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판단됨.

재고/출하비율



- 2월중 8.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도 경기회복에 힘입어 5월중에는 6.5%로 낮아졌으며 부도업체수 감소와 창업활성화로 신설/부도법인 비율이 증가추세 지속.

고용 및 부도 동향

		1997	1998		1999		
		연간	1/4	연간	1/4	4월	5월
고 용	경제활동참가율(%)	62.2	59.6	60.7	58.6	60.7	61.0
	취업자(천명)	21,048	19,710	19,926	19,042	20,004	20,301
	실업자(천명)	556	1,182	1,463	1,751	1,550	1,406
	실업률(%)	2.6	5.7	6.8	8.4	7.2	6.5
부 도	전국어음부도율(%)	0.40	0.54	0.38	0.11	0.26	0.13
	전국부도업체수(개)	17,168	9,449	22,828	1,932	591	543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배)	3.4	1.5	2.6	10.1	11.2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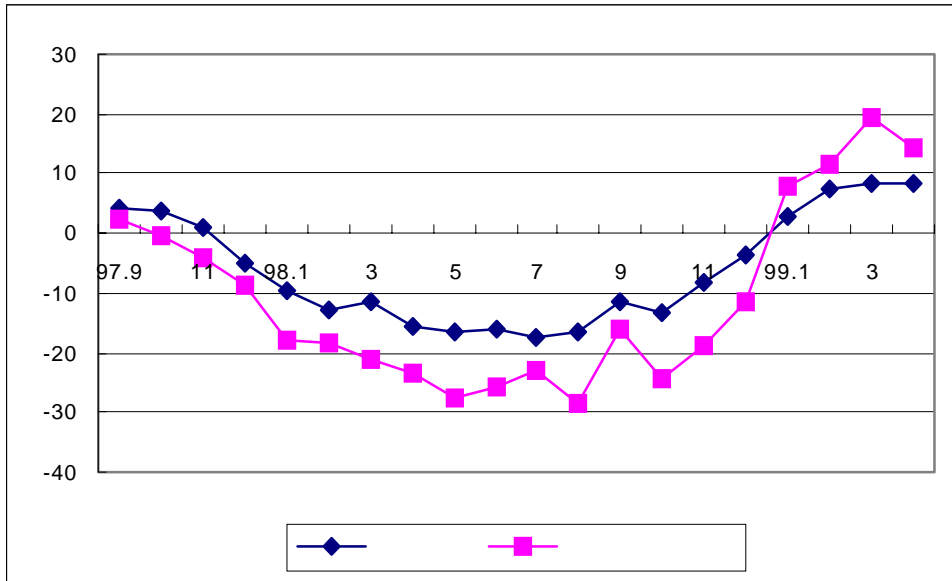
2. 민간소비

-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높은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도 신장되면서 도소매판매, 내수용소비재출하 등 소비관련지표들이 3월에 이어 4월중에도 높은 증가세 지속.

최근 소비지표 동향

단위: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4	4월	
도소매판매	3.2	-11.2	-16.0	-15.1	-8.3	-12.7	2.6	7.4	8.3	6.0	8.2	
도매	3.2	-5.3	-12.6	-10.1	-4.6	-8.3	-0.5	3.7	8.5	3.9	8.4	
소매	4.5	-9.4	-12.1	-13.9	-9.2	-11.1	0.3	6.3	5.3	3.9	6.7	
내수용소비재출하	-1.8	-19.1	-25.4	-22.3	-18.4	-21.4	7.8	11.8	19.5	13.1	14.4	
내구재	4.3	-25.0	-33.7	-32.8	-21.5	-28.5	32.6	37.5	46.2	39.3	26.0	
비내구재	-4.5	-16.6	-21.2	-17.2	-16.9	-17.9	-0.2	2.0	7.9	3.2	9.3	



■ 이처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 경기회복과 함께 지난해 외환위기로 인해 과도하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정상상태로 회복하고 있는데다 최근 주식활황세와 부동산시장 회복세 등으로 자산소득이 증가한 계층의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이며

주식시장

	97년	98년	99년					
	연말	연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22
종합주가지수	376	562	571	520	619	753	736	876
외국인순매수(억원) ¹⁾	5,069	59,424	12,685	378	4,441	10,199	-287	97
고객예탁금(억원)	26,209	37,773	49,008	39,839	53,296	89,118	83,488	85,529

주: 1) 기간중 누계(6/22일 수치는 당일 순매수)

주택시장

단위 : 전월(년)비(%)

	97년	98년	99년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중
주택매매가(%)	2.0	-12.4	1.2	0.2	0.3	0.1	0.3	2.1
주택전세가(%)	0.9	-18.4	2.1	2.8	2.0	1.4	2.3	9.6

- 또한 외환위기로 인해 98년중 9.8%감소한 제조업 명목임금이 금년들어 다시 큰 폭으로(1~4월중 전년동기대비 9.8%)상승하고 취업자수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당히 회복된 것도 소비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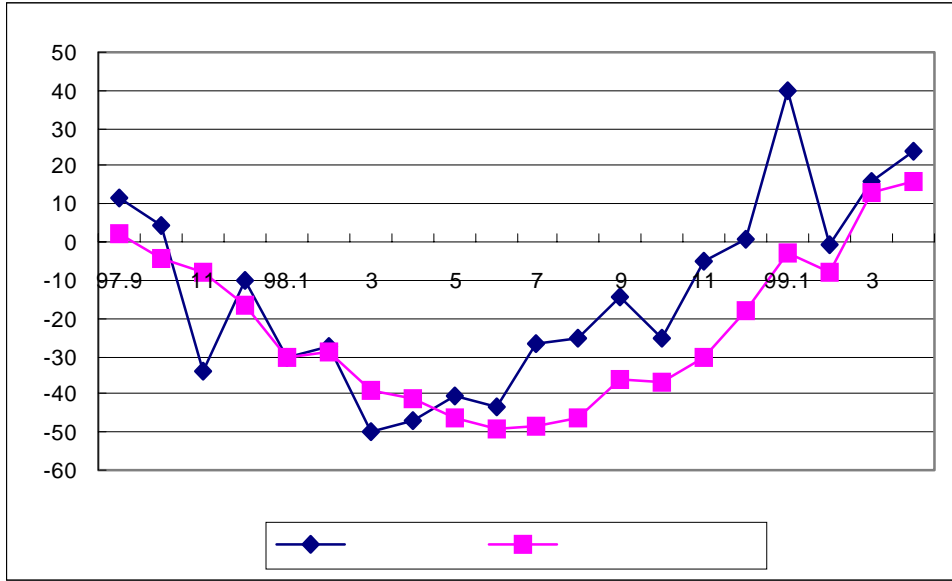
3. 투자

- 설비투자지표들이 98년의 급감세에서 벗어나 빠른 증가세.
 - 1/4분기중 16.9%의 증가세를 보인 국내기계수주는 4월중에는 23.6% 증가하며 증가세 확대.
 - 설비용기계류 내수출하는 4월중 15.7%증가하며 3월(12.9%)보다 증가폭 확대.

최근 설비투자 지표 동향

단위: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4	4월	
국내기계수주	3.3	-38.9	-43.8	-22.2	-10.9	-30.5	39.6	-1.0	15.8	16.9	23.6	
공공	-2.5	-66.3	-63.5	-14.1	-9.8	-45.1	6.1	-25.9	45.2	5.8	65.8	
민간	4.6	-30.3	-39.5	-23.6	-11.1	-27.3	44.4	3.4	12.3	18.5	19.1	
기계류내수출하	1.2	-32.9	-45.4	-43.7	-28.8	-38.0	-3.0	-7.8	12.9	1.0	15.7	
설비투자추계	-6.8	-31.3	-48.6	-43.2	-28.7	-38.7	6.4	-0.7	26.0	10.9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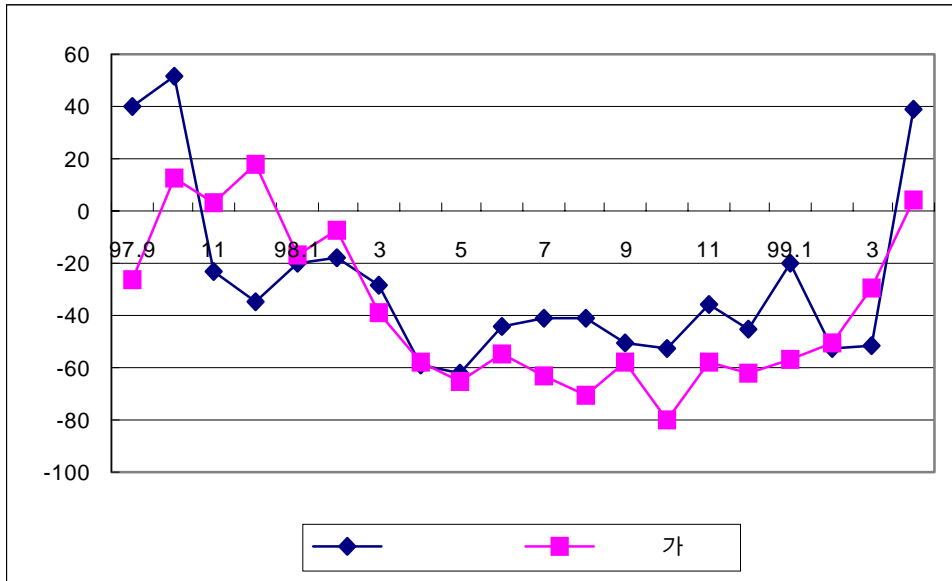
■ 다른 부문과는 달리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던 건설투자는 4월 들어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회복조짐을 보임.

· 이와 같이 건설부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예산 조기집행,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건설규제완화 등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의 영향.

최근 건설투자 지표 동향

단위: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1/4	4월	
국내건설수주	5.4	-23.4	-53.4	-44.8	-44.9	-42.5	-20.5	-52.0	-51.1	-45.3	39.3	
공공	7.6	-11.0	-13.8	-8.4	-36.7	-21.4	-11.7	-51.5	-70.2	-53.8	82.7	
민간	-5.9	-41.0	-64.7	-65.7	-56.5	-57.6	-28.2	-52.5	-4.2	-30.7	7.0	
건축허가면적	-0.4	-22.9	-59.6	-63.8	-66.1	-55.0	-56.4	-50.5	-29.6	-45.8	4.1	
공업용	-26.2	-67.8	-72.9	-69.4	-60.9	-68.2	2.2	30.0	36.2	24.2	64.5	



4. 수출입

- 5월 들어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수입 증가세가 대폭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은 4월에 비해 다소 축소됨.

수출입(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97년	98년		99년						
	연간	1~5월	연간	1월	2월	3월	1/4	4월	5월	1~5월
수출입차	-84.5	127.8	390.3	6.4	17.1	24.2	47.6	25.0	20.7	93.3
수출	1,361.6	485.7	1,323.1	92.6	93.4	117.2	303.3	115.9	115.6	534.7
증가율	5.0	8.4	-2.8	3.0	-16.7	-2.4	-5.9	-3.9	2.2	-3.8
수입	1,446.2	357.8	932.8	86.3	76.4	93.0	255.7	90.9	94.8	441.4
증가율	-3.8	-35.4	-35.5	15.4	-3.1	12.2	8.1	10.7	25.0	11.9

- 작년의 모집금 및 유휴설비 수출 등을 감안해 보면 수출은 금년 들어 소폭이나마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평균 수출

단위 : 백만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98년(모집금,유휴설비포함)	439.0	492.2	484.2	486.3	481.2
98년(비포함)	397.6	428.6	462.1	-	-
99년	394.5	473.8	471.4	486.9	506.8

자료:산업자원부

- 수입증가는 소비와 투자증가 등 내수경기회복과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가격 안정 등에 기인하며 용도별로는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큰 폭 증가.

품목별 수출과 용도별 수입

단위 : 백만달러,전년동기비(%)

		1998		1999					
		1~5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1~5월
수출	중화학공업	6.1	-10.2	8.8	-8.8	1.7	-2.3	4.3	0.4
	경공업	-8.0	-1.6	4.5	-11.8	-2.8	1.7	2.7	-1.1
수입	원자재	-34.5	-34.0	6.9	-7.1	2.4	4.1	14.9	4.2
	자본재	-38.0	-36.1	31.7	3.6	28.8	19.3	29.1	22.1
	소비재	-41.4	-40.5	10.4	-7.0	7.0	13.6	62.3	16.6

- 수입의 큰 폭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면서 4월중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에 비해 6.3억달러 축소된 20.2억달러 기록.
- 외국인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자금 유입 증가, 산업은행 등 해외중장기채 발행으로 자본유입이 크게 늘어 4월중 자본수지는 2.5억달러 도입초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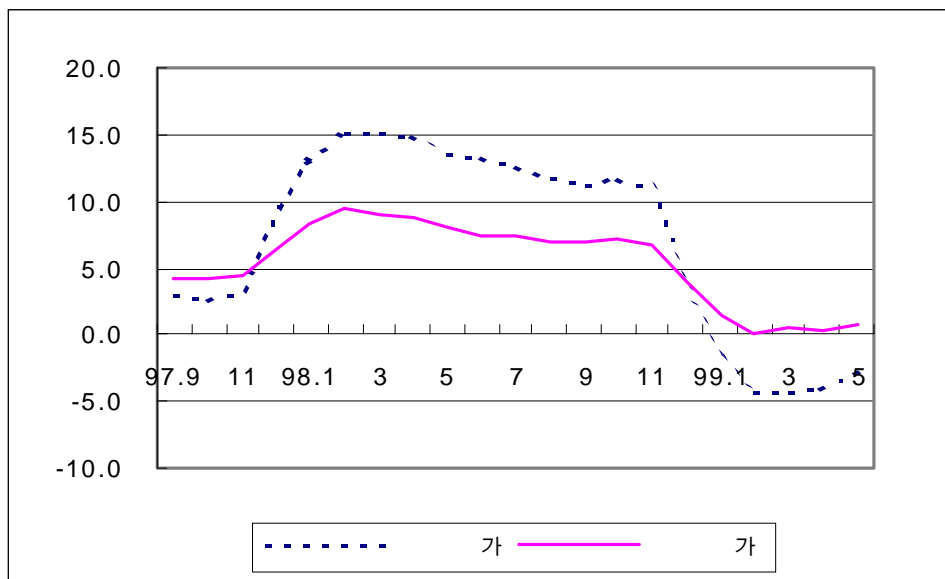
국제수지

	97년	98년		99년					
	연간	1~4월	연간	1월	2월	3월	1/4	4월	1~4월
경상수지(억달러)	-81.7	144.2	400.4	18.7	22.6	26.5	67.8	20.2	88.0
상품수지(억달러)	-31.8	134.9	411.6	18.3	23.7	29.1	71.8	27.5	98.6
서비스수지(억달러)	-32.0	4.3	3.8	-0.4	-0.1	-0.8	-1.3	-1.2	-2.5
소득수지(억달러)	-24.5	-10.9	-48.1	-1.8	-2.9	-3.7	-8.4	-7.4	-15.8
경상이전수지(억달러)	6.7	15.9	33.0	2.6	1.9	1.9	6.4	1.4	7.8
자본수지(억달러)	13.1	15.3	-39.9	10.4	6.6	-2.4	14.6	2.5	17.1

5. 물가

- 전년동월비 생산자물가 증가율이 4월과 5월중에 감소세를 이어가고 소비자물가 증가율도 4월 0.4%, 5월 0.9%의 소폭상승에 그치는 등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 이는 환율안정, 경기부진 등으로 비용과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았던 데 기인.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 전월비로 보면 5월 생산자물가 증가율은 4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0.2%하락하였음.
- 5월중 전월비 생산자물가가 상승한 것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 등 工産品 價格이 오른 데 주로 기인
- 5월중 전월비 소비자물가가 하락세로 반전된 것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공업

제품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본격출하가 시작된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에 기인.(소비자물가에서 농축수산품의 가중치는 생산자물가에서 보다 높음)

부문별 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97년	98년		99년					
	연간	1/4	연간	1월	2월	3월	1/4	4월	5월
소비자물가	4.5	8.9	7.5	1.5	0.2	0.5	0.7	0.4(0.3)	0.8(-0.2)
농축수산물	3.8	5.6	6.0	7.5	10.1	10.2	9.3	9.7(0.8)	7.8(-1.5)
공산품	4.3	12.8	11.2	0.4	-2.4	-0.7	-0.9	-0.8(0.4)	0.7(0.4)
공공서비스	5.1	9.8	9.5	4.7	2.8	2.5	3.4	2.2(0.0)	1.8(-0.2)
개인서비스	5.3	7.7	5.3	-0.4	-1.3	-1.8	-1.1	-1.8(-0.2)	-1.5(0.0)
생산자물가	3.9	14.4	12.2	-1.8	-4.3	-4.3	-3.5	-4.1(0.3)	-2.6(0.4)
농축수산물	1.9	-1.1	3.9	13.8	19.1	17.0	16.6	17.1(0.9)	18.0(-0.1)
공업제품	3.4	17.2	14.5	-2.8	-2.8	-6.4	-5.4	-5.9(0.3)	-4.0(0.6)
서비스	5.4	10.8	8.1	-2.7	-3.8	-4.0	-3.5	-3.7(0.0)	-3.3(0.3)

주: ()내 수치는 전월대비 증가율

6. 통화 · 금융

- 4월 이후 통화공급 증가율이 둔화추세를 보임.

주요 통화증가율 추이

단위: 평잔,전년동기대비(%)

	97년	98년					99년				
	연간	3월	6월	9월	12월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본원통화	-15.0	-4.7	-7.5	-13.2	-6.6	-7.2	-8.7	4.4	7.2	10.9	12.0
M2	19.2	13.7	18.1	21.1	22.0	19.1	26.3	29.9	33.7	34.5	31.0
MCT	15.3	9.5	8.2	5.4	3.0	7.6	3.1	4.9	6.9	7.0	6.7
M3	16.3	14.5	14.2	13.1	12.4	12.8	13.1	13.8	13후반	13중반	13전반

- 총유동성(M3)은 은행 및 주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수신동향을 감안할 때 3월의 13%대 후반수준에서 5월에는 13%대 전반수준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그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해 오던 M2증가율(평잔기준)은 5월중 31.0%로 전월(34.5%)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98년 5월 이후 단기수신의 저축성예금으로의 이동에 따른 M2 증가효과가 거의 일단락된 데 주로 기인.
- 본원통화의 증가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액(평잔)은 3월 이후 21조원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통화확대 추세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임.

본원통화 추이(평잔기준)

단위: 억원, 전년동기비(%)

	98.12월	99.2월	3월	4월	5월	
본원통화	202,090	214,592	209,178	209,760	209,384	
증가율		(-6.6)	(4.4)	(7.2)	(10.9)	(12.0)

-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세, 콜금리 저점인식 확산 등으로 5월중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장기금리가 5월 하순이후 다시 안정세가 회복됨.
- 이는 환율과 물가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저금리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금수요 부진 등 전반적인 자금수급사정이 원활했기 때문.
- 반면 여타 금리지표와는 달리 국고채 수익률은 국채전문딜러 선정과 관련하여 6월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그동안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지표금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국고채금리가 실세금리로 근접해 가

는 과정으로 보임. 이에따라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과의 차이가 연초와 비슷한 0.84% 포인트 차이로 근접.

시장금리추이(기말기준)

	97년	98년				99년					
	12월	6월	8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21
콜(익일물,%)	31.32	14.41	8.51	7.08	6.48	6.00	5.04	4.85	4.75	4.74	4.74
CP(91일물,%)	40.77	16.99	10.91	10.78	8.06	7.25	7.05	7.02	6.07	6.45	6.46
국고채(3년물,%)	15.00	14.00	11.30	11.50	6.95	7.05	6.96	6.50	6.64	6.67	7.22
회사채(3년물,%)	28.98	16.00	11.70	11.90	8.00	8.13	8.65	8.10	7.52	8.37	8.06

- 정부의 외환수급조절대책 발표와 엔화약세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 흑자지속, 기업자산 매각자금 유입 등으로 외환시장의 초과공급상황이 지속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급등.
- 반면 엔고를 저지하기 위한 일본정부와 EU의 시장개입으로 엔화는 약세를 보임에 따라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

원화환율(기말증가 기준)추이

	97년	98년	99년					
	12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22
₩/US\$	1,695.00	1,204.00	1,175.00	1,223.00	1,227.0	1,188.0	1,186.0	1,159.4
절상률(전년말비,%)	-50.2	40.8	2.5	-1.6	-1.9	1.3	1.5	3.8
₩/100¥	1,291.36	1,059.91	1,010.53	1,012.84	1,017.8	995.39	974.57	950.41
절상률(전년말비,%)	-43.7	21.8	4.9	3.5	4.1	6.5	8.8	11.5

제 2 장

해외경제

1. 성장

■ 2/4분기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1/4분기보다 다소 확대되었으나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2% 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 연중 세계교역 신장률도 전년보다 크게 높아지는 양을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1998		1999		2000		
	IMF	IMF	OECD	WEFA	IMF	OECD	WEFA
세계경제 성장률	2.2	2.3	-	1.7	3.4	-	2.6
미 국	3.9	3.3	3.6	2.4	2.2	2.0	1.7
일 본	-2.9	-1.4	-0.9	-1.3	0.3	0.0	0.5
E U	2.8	2.0	1.9	2.1	2.9	2.4	2.6
아시아	3.8	4.7	-	5.0	5.7	-	5.9
세계교역 신장률	3.3	3.8	4.2	4.0	5.8	5.7	6.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4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9.2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9.5

가. 미국

■ 미국경제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무역적자 확대의 여파로 당초 예상치 4.5%보다 낮은 4.1%를 시현.

· 1/4분기중 757억불의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6.8%의 증가율을 보여 성장을 유지.

· 미연준은 인플레이 압력의 현재화에 대한 우려로 금리는 현수준을 유지하되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수정.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1997년	1998년			1999년	
		연간	3/4	4/4	1/4	4월
실질GDP 성장률	3.9	3.9	3.7	6.0	4.1	..
경상수지(억달러)	-1,552	-2,334	-657	-638
소비자 물가상승률	2.3	1.6	1.6	1.5	1.6	2.3

자료: 미 연준, IMF, 미 상무국

나. 일본

■ 일본의 산업생산은 금년 들어 증가세를 나타낸 바 있으나 4월에는 전월대비 2.7% 감소세로 반전.

· 경기진작을 위한 국채발행 및 감세 등 대규모 재정조치와 통화공급완화 등이 불황심화를 억제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1997년	1998년			1999년	
		연간	3/4	4/4	1/4	4월
실질GDP 성장률	1.4	-2.8	-1.2	-3.2
경상수지(억엔)	114,363	158,608	44,477	40,002	29,927	..
소비자 물가상승률	1.8	0.6	-0.2	0.5	-0.3	-0.1

자료: 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

다. EU

■ 유럽경제는 유로화 출범에도 불구하고 작년 4/4분기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

·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와 미국과 유로지역간의 뚜렷한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유럽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며 가속화.

2. 원자재 가격

■ 국제원유가격은 비수기에 따른 수요감소로 최근 하락하고 있으며 산유국의 감산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 하향안정세가 예상됨.

· 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등은 수요부진에 따른 재고증가로 지난해에 이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임

유가 및 원자재 가격

	1997	1998	1999			
			2월	3월	4월	6/4
<현물유가>						
WTI(\$/배럴)	17.60	12.14	12.31	16.77	18.69	17.36
Dubai(\$/배럴)	15.21	10.46	10.54	13.70	15.95	14.86
<기타 원자재가격>						
옥수수(센트/부셸)	265.0	213.5	204.5	225.5	214.8	220.75
소맥(센트/부셸)	325.8	276.3	237.3	280.3	259.0	256.75
동(\$/MT)	1,712.5	1,455.5	1,378.5	1,370.5	1,555.5	1,374.0
알루미늄(\$/MT)	1,524.0	1,237.5	1,174.5	1,212.2	1,346.0	1280.0

자료 : 한국은행

3. 국제금리 · 환율

■ 국제금융시장은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고 신흥시장국의 환율 및 금리가 안정되는 한편 채권에 대한 리스크프리미엄도 낮아지는 등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일본과 아시아 외환위기국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지연, 미국의 금리인상 및 주가하락 가능성과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주요국간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에 따른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 등 불안요인도 잠재되어 있는 상태.

국제금리

	1997	1998	1999			
			2월	3월	4월	6/4
<미국 국내금리>						
재할인율	5.00	4.50	4.50	4.50	4.50	4.50
단기재정증권	5.23	4.47	4.69	4.49	4.55	4.54
장기국채	6.97	5.10	5.58	5.63	5.66	5.97
<여타 주요국 금리>						
일본 재할인율	0.50	0.50	0.50	0.50	0.50	0.50
ECB RP 금리*	2.50	2.50	3.00	3.00	2.50	2.50
영국 기준금리	7.25	6.25	5.50	5.50	5.25	5.25
<유로시장 금리>						
유로 달러	5.81	5.63	5.03	5.00	4.99	5.10
유로 엔	1.00	0.63	0.27	0.19	0.14	0.09
유로 파운드	7.63	6.26	5.46	5.32	5.33	5.38

자료: 한국은행

*: 1999년부터 유럽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이 이양됨에 따라 폐지

동남아시아 각국 환율

	97.12	98.12	99.2	99.3	99.4	99.6/4
US\$/SDR	1.3493	1.4080	1.3656	1.3578	1.3512	1.3448
¥/US\$	129.94	115.20	120.29	119.85	119.57	121.61
DM/US\$	1.7921	1.6687	1.7737	1.8152	1.8495	-
US\$/£	1.6551	1.6338	1.6046	1.6133	1.6075	1.6085
FFr/US\$	5.9975	5.9900	5.9486	6.0878	6.2029	-

자료: 한국은행

제 3장

99년 경제전망

I. 성장 및 고용

—지난해 사상최저(-5.8%)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경제는 지난 1/4분기중 4.6%의 플러스(+)성장으로 반전하였으며 하반기중 6%대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연간으로도 6%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1/4분기중 성장률은 물량기준 수출이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국내소비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4.6%에 달한 것으로 잠정 추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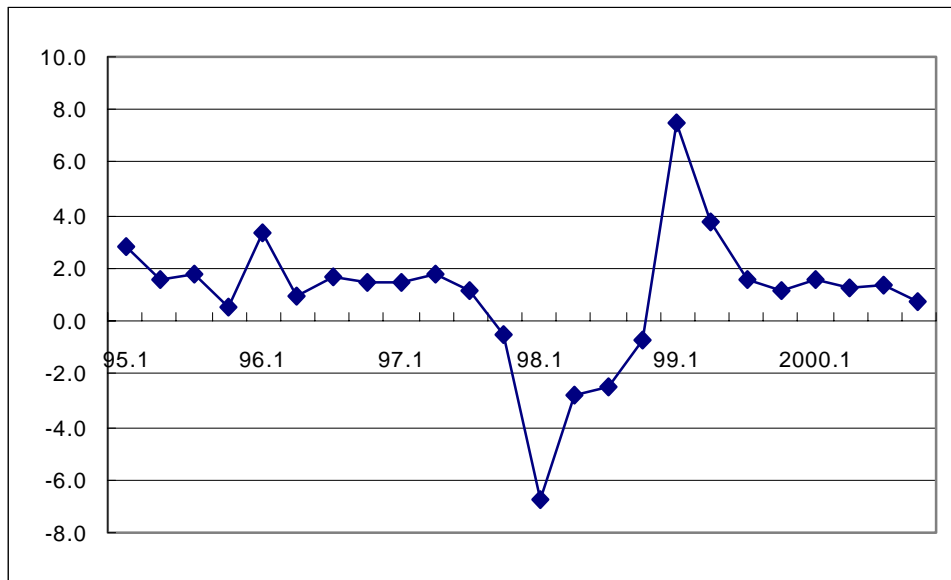
○ 2/4분기이후에도 민간소비 증가율이 6%대를 유지하고 투자회복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이후 성장을 지지해왔던 순수출(수출-수입)이 오히려 성장률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하반기성장률은 6.2%, 그리고 연간성장률은 5.8%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측됨.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및 전망

	1996	1997		1998		1999		2000
	연간	1/4	연간	1/4	연간	1/4	연간	연간
민간소비(A)	3.9	2.7	1.9	-5.8	-5.2	3.4	3.4	2.7
건설투자(B)	1.3	-0.4	0.5	-1.1	-2.2	-2.4	-0.6	0.7
설비투자(C)	1.3	0.6	-1.3	-5.8	-5.1	1.3	1.2	0.5
순수출(D)	-1.1	0.9	5.7	18.6	12.2	-1.9	-4.0	-2.3
계(A+B+C+D)	5.4	3.8	6.8	5.9	-0.3	0.4	0.0	1.6
재고증감	0.6	0.7	-2.0	-9.3	-5.6	5.2	7.1	1.5
기타(정부소비+통계불일치)	0.8	0.4	0.3	-0.1	0.0	-0.9	-1.3	2.3
국내총생산	6.8	4.9	5.0	-3.6	-5.8	4.6	5.8	5.4

- 계절변동분을 제거한 전분기대비 성장률은 지난 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등효과가 사라지는 99년 하반기 중 2%이하로 안정된 후 당분간 1%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전분기대비 성장률 추이



- 수요증가세가 현저해진 2/4분기중에도 여전히 재고감소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4/4분기중 농업재고의 증가와 함께 재고변동은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되는 등 재고확충에 의한 성장효과가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생산활동의 증가와 향후 경기호전의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자수가 감소하는 노동시장 호전추세의 지속이 예상되나 당분간 외환위기이전 수준 회복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보다 빠른 실물부문 회복과 정부의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률은 2월(8.7%)을 고비로 낮아지고 있음. 4월중 취업자수가 다시 2천만을 넘었으나 전년동월수준에 못 미치고 지난 97년의

2,100만명수준에 비하면 고용시장은 회복의 초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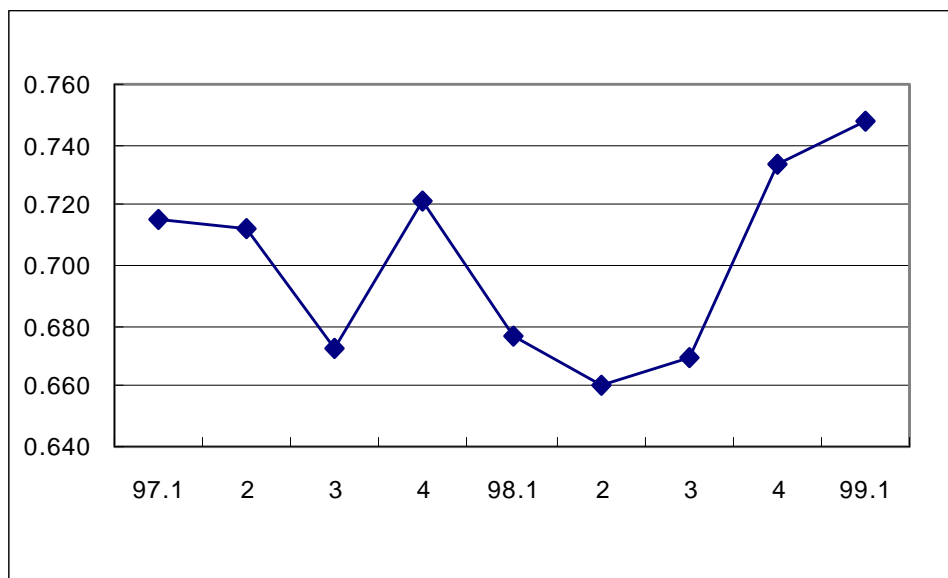
○ 지난 4월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7%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97년 62.2%에 비하면 1.5%p 낮은 수준임.

— 2/4분기 이후 예상되는 6%대의 성장은 향후 4분기정도 지속된 후, 5%대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98년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등효과는 내년 1/4분기를 전후하여, 그리고 팽창적인 금융재정정책의 시차효과는 내년 2/4분기를 전후하여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

○ 99년중 일시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을 초과하는 소비지출이 이루어진 민간소비부문은 늦어도 내년에는 다시 평균소비성향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부문의 내수선도역할은 한계가 있음.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



99/2000년 국내 거시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억달러

	1998년	1999년				2000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 총생산 (제조업)	-5.8	4.6	6.0	6.4	6.1	5.8	5.4
총소비	-7.2	10.7	12.4	11.9	9.7	11.1	6.0
민간소비	-8.2	5.0	5.2	5.1	5.6	5.2	4.6
고정자본형성	-9.6	6.3	6.5	6.4	7.0	6.6	5.1
설비투자	-21.6	-4.1	2.3	2.0	7.4	2.2	4.5
건설투자	-38.3	12.9	19.0	11.0	12.3	13.7	5.4
건설투자	-10.2	-13.7	-4.8	-2.3	5.3	-3.2	4.0
건설투자							
재고변화/GDP(%)	-8.0	-4.4	-3.9	-4.0	6.3	-1.2	0.2
stat dis/GDP(%)	-5.8	-7.9	-4.7	-4.0	-5.1	-5.4	-2.5
생산자 물가	12.2	-3.5	-1.8	2.1	3.4	0.0	1.3
소비자 물가	7.5	0.7	1.1	2.0	2.2	1.5	2.4
경상수지	400.4	67.9	55.5	43.1	38.6	205.2	131.3
상품수지	411.6	71.2	62.8	57.3	52.4	243.7	180.5
수출	1318.1	317.1	340.4	332.3	342.8	1332.6	1386.4
증가율 (%)	-4.9	-3.2	-0.7	6.6	2.1	1.1	4.0
수입	906.4	245.9	277.6	275.0	290.4	1088.9	1205.9
증가율 (%)	-36.1	6.6	20.7	32.0	22.2	20.1	10.7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11.3	-3.2	-7.3	-14.2	-13.7	-38.5	-49.2
원화 환율 (외) Won/\$	1204.0	1227.0	1180.0	1170.0	1150.0	1150.0	1120.0
엔화 환율 (외) Yen/\$	113.4	119.0	125.0	125.0	125.0	125.0	120.0

○ 투자의 경우, 향후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나 외환위기이전수준을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내외수요의 현저한 회복전망이 불투명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이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99년중 큰 폭의 투자증가는 예상되지 않음.

* 투자를 선도해 왔던 5대기업의 경우, 99년말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한 기업의 현금흐름상 투자를 늘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30대기업과 64대기업들도 워크아웃(Work-out)대상기업이 적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투자여력 약화.

- * 정부는 연간 재정투자예산 30조원중 2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2차에 걸친 추경편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의한 투자증대 및 경기지지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물가

—9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세는 99년중 평균 1.5%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 99년중 환율이 소폭이나마 절상추이를 지속하고 국제원자재가격과 임금 등 각종 비용요인이 안정되는 외에 전반적인 총수요압력도 크지 않아 물가상승은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 재고증감을 제외한 GDP규모는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수요(GDP Gap)는 물가상승압력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

3. 수출입 및 국제수지

- 지난해 무역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에 힘입어 400억달러에 달한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1/4분기중 수출부진과 수입증가로 67.8억불(추정)에 그쳤으며 연간 흑자폭은 200억불내외로 축소될 전망이다.
- 98년 411.6억불의 흑자를 기록한 상품수지는 올 1/4분기중 69.1억불(전년동기 97억불)로 줄었으며 연간 흑자규모는 240억불내외가 전망됨. 이는 수출이 전년수준에 그친 반면 수입은 약 20%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 * GDP대비 경상수지는 98년중 12.5%수준에서 99년중에는 5.0%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지난 해의 수입급감(-36.6%)과 재고감소를 반영하여 99년 수입은 큰 폭의 증가세(20.1%)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은 원화환율이 절상추세로 반전하고 동남아, 일본, 중국 등의 수입수요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소수 주력품목의 수출신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수출회복세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임.

* 예컨대, 우리나라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수출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단가는 급속히 떨어지고 있음. 64M DRAM의 경우, 98년 1월 17.89달러에서 98년말에는 9.7달러, 그리고 현재는 4.99달러로 떨어지고 있음.

- 지난 해 큰 폭으로 축소되었던 서비스, 소득 및 이전수지의 적자는 99년중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지난 해의 11.3억 달러에서 올해 38억달러내외로 확대될 전망.

4. 금리 및 환율

가. 금리

- 최근까지 하향안정기조가 유지되면서 7%대로 하락한 실세금리(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는 99년 하반기중에도 장단기금리차의 조정이외의 별다른 변동요인 없이 안정추세를 유지할 전망. 다만, 대내외 금리차가 좁아짐에 따라 해외금리의 변동에 따른 국내금리 변동 압력이 보다 커지는 등, 해외요인에 의한 국내금리인상압력이 예상됨.

○ 지난 해 9월이후 정책당국은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총수요

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은 아직 크지 않으며 가동률에 비추어 본 공급능력도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엔화약세하에서 원화가 달러화와 동반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일본이 경기확대에 힘쓰고 반면에 미국이 인플레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기조를 취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단기금리를 포함한 시장실세금리는 정책당국의 당분간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또한 현재의 탄력적인 신용공급기조가 유지된다면, 시중실세금리는 연중 명목성장률(7~8%)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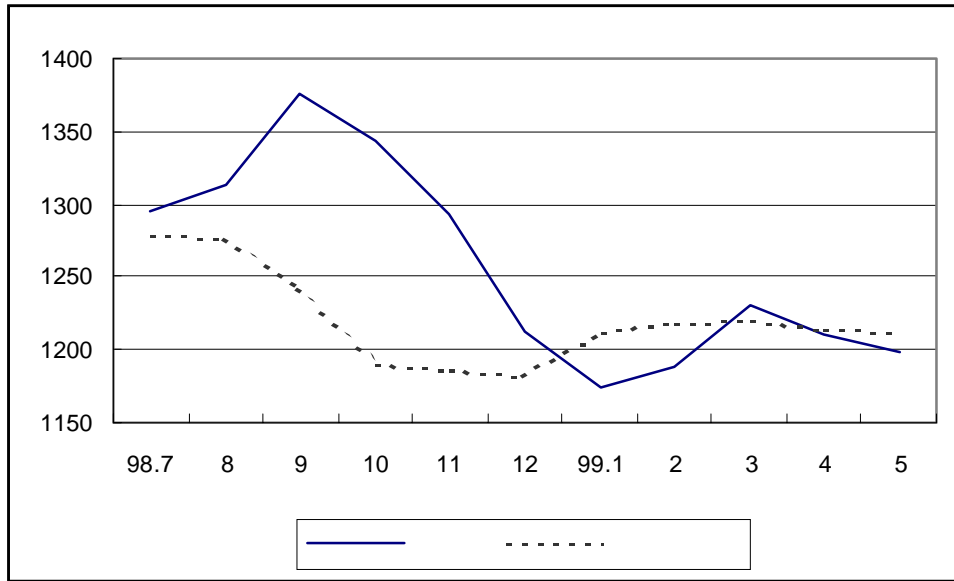
* 정책당국은 금리인하를 통해 급격한 절상압력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회복과 환율 및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외자의 유입증가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나 당국은 외환수급조절로 대처할 것으로 알려짐.

나. 환율

- 99년 6월 현재 실질실효환율에 비해 소폭 절상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화의 대미달러가치는 당국의 외환수급조정대책에 따라 절상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이나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외자유입 지속으로 완만한 절상추세 예상.

○ 본원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5월말 현재 원화의 적정환율은 1,211.76원/달러내외로 평가되나 6월 현재 1,160원 내외로 4~5% 절상된 수준에서 추가적 절상압력을 받고 있음.

실제 환율과 실질실효환율 추이



○ 당국이 원화표시 외환평형채권(40억불)을 발행키로 함에 따라 절상속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연간 달러공급은 경상수지흑자가 200억불내외, 직접투자와 증시에 대한 외자유입이 250억불내외, IMF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정된 차입 43억불 등 500억불에 달해 외환시장은 당분간 달러공급초과가 예상됨.

○ 특히, 최근의 원화가치의 절상압력이 현재화함에 따라 일본과 EU등 상대적 약세통화국에 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증대

* 1,000원/100엔수준을 중심으로 변동하던 원/엔환율이 최근 950원/100엔수준으로 강세를 유지함으로써 대일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유로화도 달러화에 대해 지난 6개월간 12.7%나 절하되고 동기간중 4%정도 절상된 원화가치로 인해 대유럽 수출상품의 단가인하압력이 커지는 등, 가격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경기상황에 대한 진단

-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어온 저금리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회복되고 이를 계기로 실물부문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유지될 경우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연초 2.0~4.0%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었으나 최근 6%내외로 수정전망되고 있음
- 예상을 초과하는 경기회복세가 실현됨에 따라 정책당국도 지금까지의 경기부양에서 안정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콜금리를 4.75% 이하로 끌어내리는 금리하향화정책을 중단하고 현재의 금리수준을 최저금리수준으로 책정하여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결정
- 그런데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기업,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노력보다는 주로 팽창적인 금융, 재정정책에 크게 주도되었음
 - 기업의 도산이 촉진되는 부작용을 낳던 고금리정책을 98년 7월 이후 저금리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고금리 → 기업의 금융비용 증가 → 기업도산 유발 → 신용경색 심화 → 고금리 지속의 악순환고리를 단절하는 계기를 마련
 - 이와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저금리체제 공조노력¹⁾에 힘입어 국제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국내경제도 안정되기 시작. 저금리의 혜택으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경감되고 →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가가 회복 →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외환위기의 공황(panics)상태에서 벗어나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 → 소비활동이 원상회복되면서 국내수요가 회복 →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짐

* 미국은 9.30 이후 3차례에 걸쳐 연방기금금리를 총 0.75%p 인하하는 조치를 취함

- 최근의 경기회복에는 작년이후 꾸준히 추진되어 왔던 금융,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실효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우나, 향후 추진하여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태임
 - 우리의 금융,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노력이 해외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을 호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음
 -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구조조정작업이 대외가시용의 성격이 짙으며 실제적인 내용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Big Deal의 과잉설비 해소효과의 실효성 의문, Work-Out작업의 효과 부진, 제일·서울은행의 해외매각 부진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 따라서 최근의 경기회복은 저금리의 혜택으로 기업들의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자산시장의 회복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에 따른 소비지출의 원상회복에 힘입은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짙음
 - 반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이 결실을 맺어 실물부문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임
- 따라서 98년 9월 이후 선진국들의 저금리 공조체계 이후 호전된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힘입어 IMF위기가 극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시 해외요인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건실한 방어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2. 향후 정책방향

가. 저금리 기조의 유지

- 최근 콜금리가 4.75% 수준까지 떨어진 이후 저금리정책 기조의 유지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임
 - 재경부는 현재의 금리수준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금리안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한국은행은 최근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등 자산시장의 일부 급등현상에 주목하여 금리인상을 용인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금리수준과 관련해서는 우리경제의 적정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금리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IMF이후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변화했음을 감안하여 금리정책도 저성장기에 따른 저금리체제로 전환하여 이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소위 황금률(Golden Rule)에 따르면 적정금리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 예상물가상승률을 3%로 잡을 경우, 장기명목금리 수준은 8% 내외가 적정
 - 미국 Fed의 단기이자율 조정방식의 하나인 Taylor준칙에 따르는 경우에도 단기이자율은 7.65% 내외가 적정하다고 판단됨²⁾
- 현재까지는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아 보임
 - 그러나 명목임금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유의할 사항임. 특히 주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물가상승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예상치가 올라갈 가능성을 경계하여야 할 것임

물가 및 임금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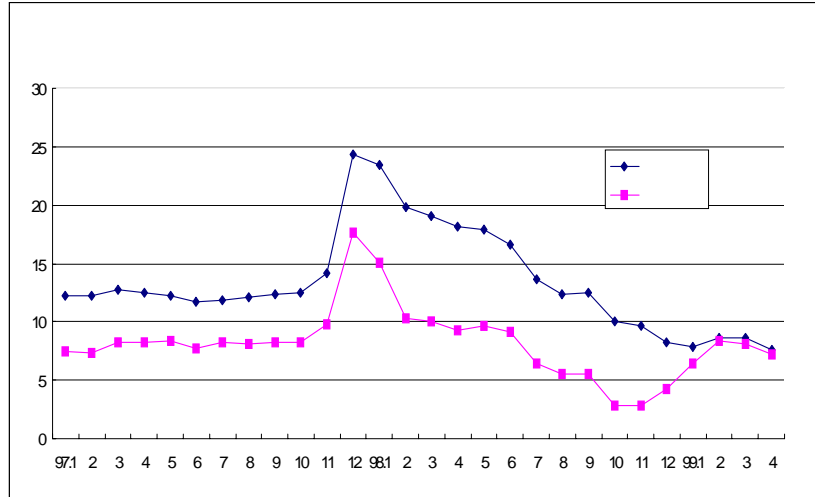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98	'99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7.5	1.5	0.2	0.5	0.4	0.8
명목임금*	-2.5	-11.1	16.5	4.1	4.2	-

* 전산업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기준

- 그리고 현재의 실질이자율 수준이 IMF이전과 비교하여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명목금리는 IMF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실질금리 수준은 IMF이전과 동일한 상태임

* Taylor준칙에 따른 단기이자율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음. 단기이자율=장기이자율+0.5*(경제성장률 gap)+0.5*(인플레이gdp)=8%+0.5*(5.8%-5%)+0.5*(1.5%-3%)=7.65%



나.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적 접근

-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단기급등에 따른 우려와 함께 시중에 유포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6월 23일 현재 주가지수는 888을 기록하여 연중 58% 상승하였으며, 97년말 71조원에 불과하였던 시가총액도 212조원(4월말)으로 대폭 증가

-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기업들의 직접금융조달이 원활해지면서 부채비율 축소의 유효한 수단으로 부상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일부 대기업 계열 투신사에 자금이 몰리면서 또 다른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주식형 수익증권 잔액추이

(10억원)

	99.12	99.1	2	3	4	5
잔액	8,316	9,869	10,306	12,423	18,403	23,705
(증감액)	(495)	(1,553)	(437)	(2,117)	(5,980)	(5,302)

-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반된 대응이 오히려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도 일어남

○ “최근의 증시활황이 거품이 아니며 실적장세”라는 평가를 내리는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의 증자규모를 감안할 때 고평가”되어 있으며 대형 주식형 펀드에 대한 향후규제방침도 표명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창구를 간접시장 중심에서 직접금융시장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특히, 기업의 부채비율축소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활성화가

필수적임

- 금년말까지 30대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57.9조원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실정임³⁾
- 따라서 주식수요를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형태에서 뮤추얼펀드,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형태로 유도하고 연기금, 보험등의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이자, 배당소득세 등의 금융소득관련 세제와의 균형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의 여타 세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고 주식차익세(capital gain tax)의 도입을 고려할 시점임
- 특히, 주식차익세율을 단기차익에 대해서는 고율을, 장기차익에 대해서는 저율의 구조로 설계한다면 주식수요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다. 실업 및 소득불균등 문제의 해소

- IMF 경제위기이후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고실업이 잉태되고 계층간 소득불균등 문제가 심화
- 실업률은 5월말 6.5%로 축소되었으나 실망 경제활동 퇴출자를 감안할 때 현실적인 실업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
-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IMF 이후 악화 지속

상위 10% 소득/하위 10% 소득

(단위: 배)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8.5	7.7	8.0	7.1	6.8	7.1	7.5	7.6	9.8	10.2

* 각년도 1/4분기 기준

* 98말 기준 30대 대기업의 부채비율 379.8%(부채 367조원/자기자본 96.6조원)를 연말까지 200%로 축소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유상증자만을 활용하는 경우

-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벤처기업지원, 신지식산업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약함
 -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사회적 손실(deadweight loss)가 발생하고 있으며, 벤처산업 및 신지식산업은 특성상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산업임
-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함. 민간부분에서의 새로운 창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건설경기 진작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가 요구됨
 -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을 통한 노동수요의 창출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식산업, 소프트웨어산업에 대비한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인적자본의 축적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는 중산층지원책으로 1.4조원의 근로소득세 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물가당국에서는 이에 따른 인플레이압력을 우려하고 있으나 물가상승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혜택대상인 근로봉급생활자들이 이미 실질 및 명목임금의 하락으로 인하여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의 상당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액감면이 소비지출을 자극하여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부록1>

*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4/1	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
4/1	금융감독위원회	○외국환업무감독규정 제정 및 시행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재경부로부터 외국환업무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받아 세부 감독규정을 마련 -주요내용: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감안하여 ‘은행·종금사’와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리스사, 카드사, 선물회사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 ·은행·종금사에 대해서는 환율위험관리(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유동성위험관리, 중장기 외화대출재원관리, 역외금융관리 및 금융기관의 내부관리 등에 대한감독기준을 명시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도비율을 종금사에 준하여 적용토록 하는 한편 환율위험 등 여타 외국환위험에 대해서는 은행·종금사의 경우에 준하여 자율 관리토록 규정
4/3	중소기업청	○1999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발표 -지원규모:총 7,218억원(정부지원액 3,962억원, 지방자치단체 확보액 3,256억원) -대출조건 ·시설자금:8억원 한도내에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3억원 한도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4/22	금융감독원	○선물거래업자 감독규정 제정(4. 22일 시행) -주요내용 ·선물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 감독 ·선물거래업자의 위탁거래 등 처리규범 ·해외선물옵션거래업무 처리규범 ·감독을 위한 보고 등
4/27	한국은행	○수출기업 금융지원강화를 위해 무역금융제도 전면 개편(5. 1일 시행) -내국신용장제도의 활성화 ·내국신용장 표시통화의 자유화 및 기한부 내국신용장제도 도입 -포괄금융 용자대상 확대 ·연간 수출실적 2천만달러 미만→5천만달러 미만 -기타 무역금융 이용편의 제고 ·원자재의존율 및 가득율 산정제도 폐지 등
5/21	금융감독위원회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개정(5. 24일 시행) -주요내용 : 생명보험회사가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추가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지급여력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감독규정을 개정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5/21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감독규정 개정(5. 24일 시행) -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감독규정을 개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자본의 구체적 범위 규정 ·여신한도제도 개편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 확대, 상환기간 완화, 금융채발행 사전신고 및 승인제도 폐지 등 금융채 발행제도 개선 ·‘약정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등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율적 경영 개선유도 근거마련 ·유가증권투자한도의 적용배제대상 명시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기한전 상환요건 신설 ·분기별 결산제도 도입 등
5/21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유동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5. 24일 시행)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정내용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정관상의 주요목적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함
5/24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인삼공사 주식매각 계획 발표 -매각규모 : 정부지분 등 25%~35% 매각 -매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국내공모 및 증권거래소 상장(15% 내외) ·2단계 : 해외DR매각(10% 내외) -주간사 선정 : 5~6월중 -한편 2000년중에는 동일인 지분한도 및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잔여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담배인삼공사를 완전민영화할 계획
5/31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9년 6월 국채발행계획 조정 발표 -공기업매각수입등 세외 수입의 호조 등으로 자금상환이 양호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국민주택기금 자금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에 계획하였던 6월중 2조4천억원 규모 국고채권 발행을 국채인수단 대표단 협의를 거쳐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

<부록2>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DP US \$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1994년	8.3	10.8	8,998	8.2	1.9	10.7	23.9	3.7
1995년	8.9	11.3	10,823	9.6	0.8	11.9	18.1	8.0
1996년	6.8	6.8	11,380	7.1	8.2	7.3	9.1	6.1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5.8	-7.2	6,823	-9.6	-0.1	-21.1	-38.5	-10.2
1997년1/4	4.9	5.6	-	4.5	1.7	0.8	4.2	-1.9
2/4	6.2	7.8	-	4.4	2.5	2.2	1.3	2.9
3/4	5.5	7.9	-	5.3	2.3	-3.6	-12.6	2.7
4/4	3.6	4.9	-	-0.1	-0.4	-7.2	-25.9	4.5
1998년1/4	-3.6	-4.6	-	-9.9	1.3	-20.6	-38.3	-5.9
2/4	-7.2	-10.4	-	-11.2	-0.7	-23.7	-46.1	-7.8
3/4	-7.1	-9.1	-	-10.4	-0.6	-22.2	-39.3	-12.0
4/4	-5.3	-4.7	-	-6.9	-0.4	-17.9	-27.4	-13.7
1999년1/4	4.6	10.7	-	6.3	-2.2	-4.3	12.9	-13.7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 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2년	766.3	6.6	817.8	0.3	-17.6	-39.4	171.5	788.4
1993년	822.4	7.3	838.0	2.5	23.2	9.9	202.6	808.1
1994년	960.1	16.8	1,023.5	22.1	-28.6	-38.7	256.7	788.7
1995년	1,250.6	30.3	1,351.2	32.0	-44.4	-85.1	327.1	774.7
1996년	1,297.2	3.7	1,503.4	11.3	-149.6	-230.0	294.2	844.2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6	88.7	1,415.2
1998년	1,323.1	-2.2	932.8	-35.5	411.6	400.4	485.1	1,204.0
1998년9월	107.5	-5.2	72.5	-37.2	37.0	37.0	433.7	1,373.6
10월	106.3	-14.7	76.5	-39.3	32.5	25.5	452.7	1,313.8
11월	116.7	-1.4	83.3	-28.9	31.9	30.4	464.7	1,243.7
12월	124.2	-0.1	86.5	-15.3	33.6	30.9	485.1	1,207.8
1999년1월	92.7	2.9	86.3	15.4	18.3	18.7	500.9	1,175.3
2월	93.8	-16.7	76.4	-3.1	23.7	22.6	519.6	1,222.4
3월	117.2	-2.4	93.0	12.2	29.1	26.5	544.5	1,227.0
4월	115.9	-3.9	90.9	10.7	27.5	20.2	563.8	1,188.0
5월	115.6	2.2	94.8	25.0	-	-	587.3	1,186.2

주: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월	물가 ²⁾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CT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1993년	1.5(2.0)	4.8(5.8)	2.8	10.9	18.6	22.9	12.6	728.2
1994년	2.8(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년	4.7(3.4)	4.5(4.7)	2.0	9.9	15.5	21.6	13.8	934.7
1996년	2.7(3.5)	4.9(4.9)	2.0	12.2	16.2	21.7	11.9	833.4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5.3	13.4	654.5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7.5	15.1	406.1
1998년10월	11.7	7.2	7.1	-0.7	26.4	6.1	10.0	358.8
11월	11.0	6.8	7.3	-0.9	26.1	5.2	9.6	429.2
12월	3.6	4.0	7.9	14.2	21.5	2.6	8.3	524.7
1999년1월	-1.8	1.5	8.5	-	26.3	3.1	7.9	597.6
2월	-4.3	0.2	8.7	-	29.9	4.9	8.6	533.0
3월	-4.3	0.5	8.1	-	33.7	6.9	8.6	586.2
4월	-4.1	0.4	7.2	-	34.5	7.0	7.6	721.1
5월	-2.6	0.8	-	-	31.0	6.7	8.3	745.4

주: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 업	평균가 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 계수주 ⁵⁾	기계류 수입 ⁶⁾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전체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3년	4.4	77.9	8.5	3.9	12.1	1.1	19.3	24.5	15.2	26.7
1994년	10.9	81.3	8.7	9.3	26.9	37.6	18.5	-1.3	16.8	-8.5
1995년	12.0	81.0	8.0	7.4	15.8	31.5	24.4	1.0	3.3	-1.2
1996년	8.7	80.8	7.0	5.8	16.5	-0.7	21.4	-3.0	-13.2	-2.5
1997년	5.3	79.0	3.2	-1.8	3.3	-22.8	5.4	-0.4	-26.2	2.6
1998년	-7.3	68.1	-12.7	-21.4	-30.5	-52.9	-42.5	-55.0	-68.2	-50.3
1998년10월	-9.3	69.1	-13.2	-24.5	-25.4	-55.2	-52.2	-79.9	-74.2	-81.3
11월	0.3	69.6	-8.1	-18.8	-5.1	-38.7	-35.7	-57.7	-50.5	-47.8
12월	4.8	71.1	-3.6	-11.4	0.9	-34.3	-45.2	-61.6	-51.0	-61.2
1999년1월	14.8	69.6	2.6	7.8	39.6	7.3	-20.5	-56.4	2.2	-67.1
2월	3.9	69.7	7.3	11.8	-1.0	-12.7	-52.0	-50.5	30.0	-57.6
3월	18.8	74.7	8.3	19.5	15.8	28.3	-51.1	-29.6	36.2	-37.9
4월	17.1	74.2	8.2	14.4	23.6	4.2	39.3	4.1	64.5	-4.0

주: 4)내수용 5)내수용,선박제외 6)94년이전 수치는 선박제외